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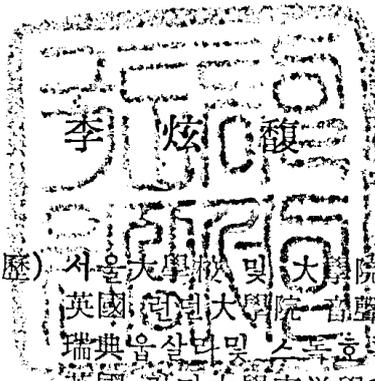
3265  
9/10.1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이 政策研究調查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韓比較一社會

# 南北韓語의 音聲學 및 言語學的 比較 研究

研究執筆責任



(略歷) 서울大學校 및 大韓院 言語學科卒  
英國 倫敦大學院 音聲 및 言語學科卒 (M. A. /PH. D)  
瑞典 烏沙納 및 스톡홀름대학 言語學 및 韓國學講師  
英國 런던大學 東洋學科 研究院 및 講師  
서울大學校 言語學科 副教授 (1970~現在)  
大韓音聲學會 會長 (1976. 12~現在)

북한어  
남북한어 비교  
" 언어이질론"  
북한어 어형론

刊行責任

崔 炳 輔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목 차

I. 머릿말	1
II. 북한언어의 공시적 분석	4
1. 개 관	4
2. 음성학적 분석	5
3. 형태론적 분석	9
4. 통사론적 분석	11
5. 어휘의미론적 분석	14
6. 문체론적 분석	21
III. 북한의 언어정책 현황	24
1. 개 관	24
2. 문자정책	25
3. 표준어정책	29
4. 어휘정화 및 사전편찬	30
5. 정치도구로써 언어	45
IV. 남한과 북한의 언어 및 언어정책 비교	47
1. 언어구조의 비교	47
2. 문자 및 국어정화의 비교	52
3. 언어정책의 비교	54

V. 남북한의 언어이질화의 원인 .....	57
1. 일반언어이론의 입장에서 .....	57
2. 언어정책의 입장에서 .....	59
VI. 결 어 .....	61

## I. 머릿말

일반적으로 한국어는 언어의 계통분류상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즉, 몽고어, 터어키어, 만주-통구스어 등의 선사대의 공통조어라고 할 수 있는 알타이선조어에서 아주 이른 시기에 분파되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한국어는 비교적 단일한 체계와 구조로서 현대에 이르게 되어 왔다. 크게는 삼한어(三韓諸語)에 근거를 두고 각 방언적 특색을 지녔던 우리 국어는 삼국통일을 계기로 신라어가 중심어으로써 이루어오다가 고려 이후엔 중부방언이 국가의 공통어으로써 현재에 이르른 것이다.

언어의 변화란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음운체계, 문법체계에 이르기까지 심화될 수 있으나, 짧은 기간내에는 큰변화를 초래하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토가 양분되고서 불과 30여년 남짓하지만 전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남한과 북한의 언어에는 이질화가 보여졌다. 비록 음운체계와 문법체계에는 현저한 이질화가 보이지 않지만, 어휘체계, 문체론적 면에서는 상당한 이질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현상은 후술하겠지만 일반적인 언어 변화 원리에 따랐다고 보다는 북한의 치밀하고 의도적이며 정치적인 언어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더라도 근본적인 염원은 국토통일에 있음이 확고부동한 것임을 절감할때, 남한과 북한의 언어이질화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토통일 이후에的確 언어문제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정책 입안에는 항상 남북한에 있어서 언어의 동질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언어정책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의 언어에 대해 음성학적, 언어학적 비교연구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토통일을 염두에 둔 우리의 언어정책의 기본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리란 가정이 성립하기 때문인 것이다.

원래 본고는 상당히 방대하게 집필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상 많은 부분을 줄이게 되었다. 특히 실험음성학적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에서 실지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리듬, 억양(인토네이션) 그리고 음성의 장단 등과 음운의 변이음 등을 광범히 다루려 했었다.

이 부분은 다음의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북한 언어의 공시적(Synchronic) 분석을 시도한다. 지금까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비교에만 일관해 왔던 연구를 본격적으로 음성학적, 언어학적 이론체계 위에서, 음성-음운론, 문법론(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어휘의미론)의 측면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다음엔 북한의 언어정책의 현황을 살펴 본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자정책, 표준어정책(소위 "문화어" 정책), 그리고 어휘정화 및 사전편찬에 대해 살펴 본다. 그리고 언어구조의 기술과 언어정책의 현황을 토대로 남한의 언어와 비교를 시도한다.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교로써 파악된 이질화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해 보는 것이 본고의 결론적인 부분이 되겠다. 이질화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일반언어이론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고, 다음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정책적인 면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화를 진정한 민주사회통일문화로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언어와 문자를 가다듬고 지켜나아 가기 위함에 있다. 우리 남한의 언어문화와 국어생활이 그러한 우위성을 가짐으로서만이, 결집을 수 없이 변화해가는 북한의 언어의 도전에 대처하여 교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II. 북한언어의 공시적 분석

### 1. 개 관

남북한이 분단된지 이제 30년 남짓 되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언어는 변화의 요인이 주어질 때는 변화해 가기 마련인 것이다. 이것은 언어의 자의성(恣意性)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증명되는 바이다. 대체로 불과 30여년 만에 근본적인 음운체계나 문법체계가 변화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어휘체계면에서는 이 기간동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변화에서 변화의 요인 중 가장 중심이 된 것은 북한의 소위 국어정책이 대남전략면에서 언어가 가지는 혁명적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에 있어 정치사상 교양 및 주변조직 동원에 기여토록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국어정책은 남북한 간의 언어 자체에 현저한 가치관의 차이를 초래했음은 물론, 동일 언어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차마저 유발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민족분열을 심화시키는 비극적 요인으로까지 매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북한어에서만 특색있게 나타나는 언어구조상의 현상을 공시언어학적 입장에서 음성학적-음운론적 관점, 형태론적 관점, 통사론적 관점, 어휘의미론적 관점, 문체론적 관점에 따라 기술하기로 한다.

## 2. 음성학적 분석

먼저 음운론적 특징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음운론적 특징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뚜렷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음소체계, 음운현상, 운율적현상 등에 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음소체계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 19자음과 10단모음체계가 음소로써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아 진다.

- 자음체계 : ㄱ, ㅋ, ㆁ, ㄷ, ㅌ, ㅍ, ㅂ, ㅃ, ㅍ,  
ㅅ, ㅆ, ㅈ, ㅊ, ㅍ, ㅇ, ㄴ, ㄷ, ㄹ, ㅁ, ㅎ
- 모음체계 : (전모음) ㅣ ㅓ ㅕ ㅗ  
(후모음) ㅜ ㅛ ㅝ ㅟ

다음에는 음운현상에서 특색있는 것을 몇가지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어두에 자음이 제약을 받지 않고 분포한다는 점이다. 국어에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어두에 ㄹ과 ㄴ이 어떤 환경에서 나타나지 않은 현상(두음법칙)이 있는데 이 현상이 무시되어 버린 것이다.

원래 두음법칙이란 알타이어의 공통특질인 것으로서 우리말에 있어서도 상당히 철저히 지켜져 왔던 음운현상의 하나이다.

즉, ㄹ의 경우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두에 분포함을 피하고, ㄴ의 경우에 있어서는 [j]음이 바로 후행하는 어두, 즉 ㅓ, ㅕ, ㅗ, ㅜ, ㅛ, ㅝ, ㅟ 등

과 결합되어 어두에 나타낼 때엔 ㄴ이 탈락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 ( 예 ) 로동신문 ( ← 노동신문 )  
량반 ( 兩班, ← 양반 )  
념원 ( 念願, ← 염원 )  
여자동맹 ( 女子同盟 ← 여자동맹 )  
리△△ ( 李아무개 ← 이△△ )

다음으로는 ㄴ | ㄴ 모음 역행동화가 상당히 광범히 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즉, 후설모음이 후행하는 ㄴ | ㄴ 모음에 영향을 받은 우무라우트 현상인 것이다. 후설모음인 ㄴ가 전설모음 ㄴ으로 바뀌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 ( 예 ) 부스러기 → 부스레기  
엉덩이 → 엉땡이  
무더기 → 무데기  
누더기 → 누데기

그리고 후설모음 ㄴ가 전설모음 ㄴ으로 바뀐 예들은 다음과 같다.

- ( 예 ) 아지랑이 → 아지랭이  
본토박이 → 본토백이  
곰팡이 → 곰팽이

자세하다 → 재세하다

다음의 특징으로는 복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는 단모음화현상이 있다. 즉, 치레→치래, 쥘레→쥘래가 그 예가 된다.

또한 모음에 있어서 후설음화 현상의 경우도 광범위한 현상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ㄱ이 ㄱ으로 발음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예) 위에(上) → 우에

문어귀 → 문어구

귀퉁자리 → 구름자리

귀퉁나무 → 구름나무

그리고 니음이 ㄴ으로 발음되는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물외리 → 물오리, 쇠고기 → 소고기가 그 예이다.

그리고 원래 방언적인 특징으로도 존재해 왔지만, 일부 서울말의 평순모음에 원순모음의 현상이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이다.

즉, ㄴ-음의 ㄴ으로 발음된다거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 ㄱ-음이 ㄴ-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원순모음화의 예가 되겠다.

ㄱ-음의 발음에 있어서 ㄱ-음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경향이 있다.

자음에 있어서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경음화현상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 예 ) 원수 → 원쑤                  복수 → 복쑤  
           그그제 → 그끄제              속새 → 쑥새  
           고니 → 꼬니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 j ] 반자음을 용언활용시에  
 개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표준어에서 「하였다」에서 개입된  
 [ j ] 음이 용언활용전반에 나타난다.

( 예 ) 되었다 → 되였다  
           헤어지다 → 헤어지다  
           회였다 → 회였다

다음으로 운율적 특징으로는 장단, 고저는 그 변화가 잘 파악되  
 지 않고 있으나 억양면에 있어서는 뚜렷한 변화를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조선어의 발음은 혁명하  
 는 인민들의 사상과 생활감정을 담아, 혁명적으로 세련되어 있으며  
 쉼쉼하고도 기백이 차고 넘치는 발음이며.....」

즉, 이것은 북한어에 있어서 억양이 음변조와 투쟁, 선동조의 고  
 음, 강약의 악센트를 주로하는 낭독, 선전조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운율적특성이 변별적 자질 외에도  
 감정적(표현적)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고 하겠다.

또한 특징으로는 북한의 연설문을 분석해 볼 때, 남한과 비교해서 말로막의 분절이 짧으면서 단위가 많음이 특징이다. 즉, 리듬 단위가 분명하며 리듬단위내에서 고저가 심하게 들어나고 있다. 이것은 발음을 강력하게 전투성을 지니게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낭독조의 문장에 있어서는 리듬의 단위가 짧으면서 문장 내의 리듬의 단위 수가 많은 것이다. 이와같은 억양과 악센트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정밀한 분석이 요망된다.

### 3. 형태론적 분석

형태론이란 형태소의 됴됨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어법과 굴곡법의 범위 내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 (1) 조어법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교도적이며 다의적인 신조어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음이다.

(예) : 혁명적, 군중관심, 반제반미반일사회주의혁명투위

그리고 이에 문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파생접사(derivational affix)의 사용 범위를 확대시켜서 조어를 하고 있다. 즉, 잡-히다, 먹-히다 등에서 볼 수 있는 「피동」의 접사 -히-를 여러 동사에 그 범위를 확대시켜서 「생각하다」란 동사에 적용시켜 「생각히다」 「깊다」에 적용시켜 「깊히다」 등으로 쓰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 -지다 " : ( 원래 그릅지다, 기릅지다 )

-차레지다, 주렁지다

-차다 ( 원래 힘차다, 숨차다 등 )

: 영광차다, 희망차다 .

-맞다 ( 원래 방정맞다 등 )

: 급해맞다, 바빠맞다

-롭다 ( 원래 슬기롭다 등 )

: 저주롭다 고르롭다

이러한 용언의 파생접사가 있는가 하면, -적(的), -성(性),  
-운동(運動)을 명사 뒤에 써서 많은 새로운 형태소결합을 가능  
케 하고 있어, 당적(党的), 당성(党性), 빈손퇴치운동(運動) 등  
이다.

또한 새로운 파생접사(derivational affix)를 만들어서 기존  
의 조어방식에 유추시켜 형태소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어 볼 수가 있다.

-어-나다 : 부러워나다, 좋아나다, 더워나다, 당황해나다

-어-나서다 : 떨쳐나서다, 꺾기하여나서다, 지지하여나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태소결합의 확대를 위한 한 수단으  
로 조어법에 새로운 원리를 써서 범위를 넓히는 반면,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기존문법체계 내에서 다양한 신조어(新造語)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은 한글전용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거  
기에 따른 여파로 "말다듬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본격화된 것인

데 여기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 2) 굴곡법

문법범주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문법 기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문법범주의 설정에 있어서 「조사」(助詞)를 설정하지 않고 있음이 특색이다. 즉, 독립된 하나의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명사의 곡용접사(inflexional affix)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마련시키는……」의 문장에서 -은, -과 -을 등을 곡용접사로서 명사의 부속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문법기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나 원래 북한의 문법기술체계는 근본적으로 金料奉의 [조선말본]에 근거를 했다.

## 4. 통사론적 분석

통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크게 특이할만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존대법체계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사회현상에 기인하여 체계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흔히 국어에서 자주나타나는 통사적 관계에서 명사나 동명사의 절대격형에 속격형이 연결되는 형식이 용언형의 확대사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두드러지고 있다. 즉, 이것은 소위 팔다듬기운동에 의한 결과라고 풀이된다. 「최후의 목적을 이룩하는데서

승리자가 되자》, 《이미 마련해 놓은 경제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달성》이란 구조를 《목적  
이룩하...》로 통사형식을 고쳐 나아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장구조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주어가 중심이며, 수식어와 서술어는 주어의 위상에 따라 달라짐도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예는 김일성을 지칭할 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존대법체제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주체존대의 -시-는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어중심으로 문장이 전개되고 있어서 -시-의 출현이 상당히 자주 나타난다고 보아 진다.

그리고 상대존대는 소위 《웃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며 동지들과 친구들을 존중하면서도 다정하게 지내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생활감정에 맞게》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대존대법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①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위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높임법>이 사용이 된다.

-보다 남자에게 많이 쓰이고, 정중한 맛을 주는 어미: -버니다  
-버니까, -버시오 등.

-좀더 여자들에게 많이 쓰이고, 부드럽게 들리며 친근한 느낌을 주는 어미: -아요, -예요, -세요, -군요, -지요, -니까요, -나요  
-자요, -라요 등

②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서로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쓰는 <갈음말>은 다음과 같다.

- 공식적이고 존중하는 뜻빛깔을 가지는 어미 : -오, -소 등  
- 허물없이 친근한 느낌을 주는 어미 : -아, -지, -네, -군,  
-나, -나가, -라구, -계, -세 등

③ 말을 듣는 사람이 아랫사람이면서 보통 잘 아는 사이인 경우에 허물없이 쓸 때는 <낮춤말>을 사용한다. 여기에 속하는 어미 들은 -니다, -구나, -누나, -냐, -니, -자, -타, -렴, -마 등이 있다. <낮춤말>의 어미들을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 올려다 쓸 때는 허물없고 친근한 느낌을 주어,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이 쓰인다고 한다.

따라서 상대존대법의 전통적인 계층인 <존대>, <하오>, <하계>, <해라>, <반말>의 다섯 계층은 부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존대법에 있어서 문장성분 상호간의 호응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어와 술어, 규정하는 말과 규정받는 말, 보어와 술어, 부름말과 술어, 대답어와 술어 간의 호응이 잘 일어나고 있다.

한편 통사구조에서 또 한가지 특징있는 현상은 의도적으로 복수 개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들은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 “말들을 다듣는데 있어서 단어들의 뜻과 결합관계를 고려할

때” . “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했고..... ” .

통사론적 관점에서 보면 대개 이상과 같은 몇가지의 특징이 보일뿐 근본적인 어떤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 5. 어휘의미론적 분석

현재 북한어의 공시론적 어휘의미론을 분석함에 있어서 살펴 봐야 할 일은 그간 어떠한 어휘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를 거쳐서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의미변화의 계기는 개념 (Sense) 과 명칭 (Name)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개념 (sense) 사이의 관련성으로 일어나는 의미변화, 명칭 (name) 사이의 관련성으로 일어나는 의미변화, 또 명칭 (name) 상호간의 관련성으로 일어나는 의미변화, 명칭 (name) 과 개념 (sense) 의 동시적 관련성으로 일어나는 의미변화 등이 있겠다.

이제 이러한 관점과 관련해서 몇가지 유형으로 어휘의미론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명칭은 다르고 개념은 같은 어휘 (이하 예들에서 원문이 본디말이고 오른쪽이 현재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이다. )

깨끗하다 - 꼴꼴하다.

세차게 매리다 - 답세기다

무질서하다 - 무연하다

무척 - 무등

조직하다 - 무으다

폭로되다 - 발가지다

수행 - 성수          땀 - 땀 ,          음막 - 풍막

술선수법 - 이신작척

고기잡이 - 추어진

헤쳐나가다 - 헤가르다

농가 - 농호 ,          터널 - 굴간 ,          채소 - 남새

일직근무 - 직일병

군사계급 - 군사칭호

대중가요 - 군중가요          화장실 - 위생실

산책길 - 유보도

전시물 - 직과물

상이군인 - 영예군인

수업시간 - 상학시간

상호 - 호상 ,          월동준비 - 과동준비

양해 - 료해          앙로원 - 앙생원

귀순자 - 의거자

관상대 - 기상수문국

(2) 명칭은 같고 개념이 다른 어휘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아버이」란 말은 원래 친부모를 가르키는 것이 었으나, 김일성을 가르키는 상징적인 어휘로 되었으며, 「가족주의」란 말은 가족제도로서 원래의 개념을 지녔으나, 몇몇 사람이 정실관계를 맺고

조직에 앞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일종의 종파주의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 「빨지산」이란 말도 게릴라단을 의미했으나, 이제 혁명적 영웅을 뜻하게 되었고, 「아가씨」란 말도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고, 봉건사상을 나타내는 나쁜 뜻으로 쓰이고 있다.

(3) 다음에는 명칭이 새로 생긴 어휘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주부들이 식권을 맡겨 놓고 끼니때 밥을 사가는 곳을 「밥공장」이라고 쓰고 있다.

작업기준량은 「노루마」란 말로, 만 18세 이상이 늘 휴대해야 하는 신분증은 「공민증」이란 새로운 말로 쓰고 있다.

배우 급수 중에서 가장 높은 급수를 「인민배우」라고 한다.

그외에도 「붉은백타이제급」이니, 「주체사상」, 「붉은 봄」 등의 말들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다음에는 개념이 새로 부여된 어휘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궁전」이란 어휘가 「사회적 사명을 띤 훌륭한 건축물」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그래서 소년궁전, 문화궁전, 노동궁전, 아기궁전 등으로 쓰인다.

「가장 중요한」의 개념으로 「왕」이란 어휘가 개념이 확대되었다.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란 문장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예술」도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기술과 숙련」이란 개념

으로 확대되었는데, 다음의 예문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다.

(예) : 군사예술을 습득하자.

(5) 명칭을 방언에서 그 소재를 구해서 대치시킨 어휘들도 있다.

(예) : 거위 - 게사니

상추 - 부루

옥수수 - 강냉이

수레 - 달구지

못쓰게 망가뜨리다 - 마스다

(6) 명칭을 외래어, 특히 쓰련어에서 들여다가 기존의 어휘를 대치시킨 어휘들도 있다.

(예) : 공동집단 - 품무나

집중사업 - 감빠니아

주제 - 쩌마

그룹 - 그루빠

개 - 짜마카

종합공장 - 꾀비나트

소년단 - 뵈오네르

이상이 의미변화에 의한 기술이었는데, 북한의 어휘체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말다듬기」 운동에 의해서 쉬운말, 고유어로 다듬어진 것이 상당히 많다.

여기에 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그 몇가지만 예시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 예 ) : 추수 - 가을같이  
역우 - 부림소  
파마 - 북음머리  
치자 - 이바퀴  
폐활량 - 폐숨량  
다다미 - 누비듯자리  
판걸 - 뼈마디  
멸균 - 균깡그리 죽이기  
살균 - 균죽이기  
인력 - 끝힘  
만원 - 자리없음  
방출하다 - 내보내다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은어가 발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은어는 그 사회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중요한 언어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몇 가지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 북한에서 쓰이는 # 20호 # 라는 말은 # 허가번호 20호 # 나 # 20戶 # 가 아니다. 사람몸에 기생하는 # 이 # (虱) 를 # 20호 # 라고 한다. 북한내각결정 제20호로 이잡기운동을 벌린데서 유래한 말이다.

○ 또 # 49호 # 가 있는데, 출신성분이 나쁘다고 해서 타지

방으로 이주된 자를 가리키는데 그 근거를 마찬가지로 내각결정 49호에서 나온 것이다. 「11호」는 그사회의 고급간부를 지칭한다.

○ 「가락국수」란 은어는 「칼·마르크스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며, 「뼈다구동무」는 「소년단」을 가리키는 데, 쓰련어로 뼈오네르는 소년단을 뜻하는데 뼈오네르동무를 뼈다구동무라고 한다. 또한 「크라이막스」는 「칼·마르크스」를 가리키는 은어이다.

○ 「까마귀 울어」····· 인민제판이나 군중제판이 있는 날

○ 「감박이는 좃불」····· 당증없이 사는 비당원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

○ 「견본상뽕」····· 이른바 영예칭호를 받은 노력 혁신자

○ 「고급과자」····· 누릉지

○ 「공 타하 동무」····· 공산군 타도하자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은어로써 「저 동무도 걸으론 저렇게 설치지만, 사실은 공타하 동무와 가깝다고·····」 하면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 「김 마투 동무」는 「김일성은 마적단 두목이다」라는 뜻으로 김일성을 가리키는 말이며, 「김 인백 동무」도 「김일성은 인간 백정이다」라는 뜻으로 김일성을 가리킨다. 비슷한 예로 「김 피에」는 「피비린네」에서 따온 말이 있으며, 「번지없는 주막」은 김일성의 집을 가리키는데 그곳은 번지가 없기 때문에 불혀졌다고 한다.

○ 「벌잠」····· 농촌에서의 강제영화관람을 빗대서 쓰는 말.

○ 「돈수대근탕」····· 고기는 한결없이 돼지국물에 무우를

떠온 국을 빈정되는 대학기숙사의 은어

○ 「33 계단」…… 북한 주민의 사상을 33 종류로 분류해 놓아서 성분분석표를 빈정되는 은어

○ 「콩사탕」은 공산당, 「하모니카」는 아파트를 가리킨다.

○ 「해방처녀」란 결혼전에 아기를 낳은 미혼모를 풍자한 말이며, 「지주」란 지주처럼 배가 부르다는 의미에서 임신한 여자를 가르키는 말로 쓰이며, 「엎어말이」는 지조없이 놀아나는 여자, 「오락행위」는 야밤중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정사, 「기술적으로 하라」는 처녀들과 교제나 연애는 남몰래하되 애인의 임신은 피하라는 뜻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은어들이다.

○ 「고급세미나르」는 음담패설을 일컫고, 「수령은 짧고, 인민은 영원해」란 대학사회에서 쓰이는 김일성의 저주어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은어들은 대개 북한 사회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휘체계의 분석에 있어서 끝으로 부언해 둘 것은, 소위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민족어의 독창적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는 말다듬기는 혁명적 어휘로써 사상을 고취하고 유물사관에 입각한 민족문화개조발전의 무기로써 대개체화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 6. 문체론적 분석

북한언어에서 문체론적 특징을 그들 자신은,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을 보장하고 말과 글이 전투성, 호소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어휘구성의 변화발전과 문법적 수단의 이용 그리고 문체적 수법의 발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은 오히려 도외시되고, 전투성과 호소성만 강조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 붉은기 (기관차 이름)
- 봉화거리 (거리 이름)
- 청산리 사람들의 일숨씨
-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러한 예들은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을 가지기 보다는 전투성과 호소성을 강조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문체론적 특성을 하나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1) 접속어미 -고, -며 로 연결되는 병렬복합문을 쓰는 문법적수단의 이용으로 전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고, -며 로 이어지는 구문은 대칭성의 단어 또는 구절을 복합하기 때문에

강건한 인상을 주고 있다.

(예) ○ 새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 것은 멸망한다.

○ 강철은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투사는 시련 속에서 단련된다.

○ 산천도 변했으며, 사람도 변하였으며, 일하는 솜씨도 변하였다.

(2) " -는데 대하여" 를 써야 될 경우에 " -을데 대하여" 구분을 자주 쓰고 있다.

(예) ○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협조할데 대하여,

○ 조선말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킬데 대한.....

○ 우리말과 글을 올바르게 쓰는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들을 우리말로 제때에 고쳐 쓸데 대한 교시 해설

(3) 짧은 문장을 주로 써서 전투적 성격이 뚜렷해진 문장을 쓰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억양의 문제가 작용해서 더욱 더 전투적 성격을 뚜렷하게 해준다.

(예) ○ 전진! 돌격!의 외침과 함께 .....

(4) 직설적이고 육설과 격렬한 성토적 표현, 과장된 극존대(수령에 대한), 수식어로 나타난다. 즉, 언어가 날로 거칠고 호전적인 속어, 은어가 늘어가고 있다. 다음의 예는 신문지상에 버젓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예) ○ 돌탕을 쳐 죽이다.

○ 미세의 자를 뜨자.

(5) 명령형, 선행형, 감탄형이 많이 쓰이고 있다.

(6) 북한문헌에 있어 그 논리 전개방법이 천편일률적이다. 특히 반복을 통한 강조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7) 북한 문헌의 제목은 대개가 서술적인 문장체로 이루어져 있어 장황하고 선행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다음의 예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예) ○ 말다듬기는 조선말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 언어는 민족을 이루는 공동체의 하나이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언어사용의 빛나는 규범을 따라 배우자.

그들 자신들이 주장하듯이, 문체론적 특징을 살펴 보면, 전투적이고 호소성이 큰 문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문체론상의 특징은 그대로 북한 주민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될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III. 북한의 언어정책 현황

#### 1. 개 관

북한의 언어정책은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대남전략면에서 언어가 가지는 혁명적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에 있어 정치사상 교양 및 주민의 조직, 동원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언어정책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김일성의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1964)」에서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언어학자들은 ……사상적으로 동원하고 사회적운동을 벌려 모든 사람들이 우리말을 올바르게 쓰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당이 옳은 방향만 내세우면 대중은 인차 그것을 따라 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 아래서 북한의 언어정책은 한반도의 분단이래 「한자폐지—한글전용」과 소위 「말다듬기 운동」이라는 국어정화사업을 해 왔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언어정책을 한자폐지를 중심으로한 문자정책과, 소위 「문화어」라고 지칭하는 표준어 정책, 그리고 어휘정화정책과 거기에 관련된 사전편찬에 관한 현황을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치도구로서의 언어가 얼마나 그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 2. 문자 정책

북한에 있어서 문자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첫째는 한자폐지 - 한글전용의 문제이고, 둘째는 맞춤법 문제이다.

### (1) 한글전용 문제

북한은 1949년 9월 8일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와 함께 한자쓰기를 완전히 철폐하고 한글로만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문자교육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한자를 폐지하고 전격적으로 한글 전용을 단행함에 따라 일어나는 부작용은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했을 때 그 의미의 혼동이 있었다.

한자를 전혀 모르는 새 세대가 한자의 어원을 가진 낱말을 한자로만 표기했을 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는 것이다.

### (2) 맞춤법 문제

북한에서는 한글전용이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소위 "말다듬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여파로 1954년 9월에는 "조선어 철자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종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크게 수정한 것으로써 북한의 맞춤법의 기본적

인 규범이 되어왔다.

그 이후 1966년 7월에 『조선말 규범집』을 공포했는데 이는 앞서의 『조선어 철자법』을 수정한 것이다. 이제 이것들을 토대로 북한의 맞춤법 정책을 살펴 보기로 한다.

『조선어 철자법』은 단어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동일한 형태로 표기하는 형태주의의 원칙을 그 기본으로 삼는다.

라는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은 규정을 하고 있다.

첫째, 자모를 규정하는데서 특이한 사항은 ㄱ, ㄴ, ㄷ의 명칭을 『기옥』, 『디음』, 『시웃』으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자어에 그 기원을 둔 음절로서 부모음은 <제>, <례>, <혜>만을 두고, <세>, <제>, <체>, <폐> 등은 각기 단모음 <세>, <제>, <체>, <폐> 등으로 규정되었다.

예를 들면 폐회식(閉會式)의 철자를 <폐회식>으로 적는 규정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셋째, 한자어에 기원을 둔 것으로써 <ㄱ>를 인정하는 것은 <회>, <의>만 허용하고 있다.

넷째, 용언의 어미에 있어서 <ㄹ> 음 다음에 경음화가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경음화로 표시하지 않고 철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 예를 들면,

ㄹ까 → ㄹ가,

- ㄹ쑤록 → - ㄹ수록

- ㄹ짜라도 → - ㄹ지라도

- 올씨다 → - 올시다 등으로 철자하도록 되어 있다.

다섯째, 용언의 어미활용에 있어서 어간<이, 애, 예, 외, 위, 의>에  
〈-어〉, 〈-었〉이 이어질 때는 〈하-〉동사의  
경우에서 처럼 〈-여〉, 〈-였〉으로 철자하도록 되어 있다.

(예) 개여, 개었다. (개다)

기여, 기었다. (기다)

되여, 되었다. (되다)

배여, 배었다. (배다)

취여, 취었다. (취다)

회여, 회었다. (회다)

즉, " | " 모음의 순행동화 현상을 표기법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사이 ㅅ의 문체에 있어서, 형태소가 결합되어 복합어(합성어)를 형성할 때는 <'>의 부호를 쓰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다시 <'>부호를 쓰지 않고 표기하기로 했다.

그 예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 난다.

○ 그믐달을 <그믐'달>로 표시하다가 다시 <그믐달>로 표시 함.

○ 기'발 → 기발

○ 댕'이 → 댕이

- 손'등 → 손등
- 버들'잎 → 버들잎
- 대'가(代價) → 대가

일곱째, <하- >의 줄임형태인 <ㅎ>을 표기 않기로 했다. 즉, 다정하다 의 줄임형태인 <다정ㅎ다>는 표기하지 않고 다정타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먹읍니다, 먹습니다, 하였읍니다 류는 모두 " -습니다 " 형으로 통일해서 쓰기로 했다.

그리고 띄어쓰기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예들을 볼 때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존요소는 모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예 ) ; ○ 한 인호 동지 → 한인호동지

○ 학습할 것 → 학습할것

○ 일어 나다 → 일어나다

○ 읽고 있다 → 읽고있다

○ 할 것 없이 → 할것없이

○ 조직 결속한 것은 → 조직결속한것은

문자 정책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해 둘것은 글자의 개혁연구에 관한 논란이었다. 이는 아마 金村奉의 풀어쓰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민족분단과 과학문화의 저하 등의 이유를 들어, 조국통일 때까지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3. 표준어 정책

북한에서의 표준어란 소위 "문화어"라고 하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말을 가르킨다. 이 "문화어"라는 말은 표준어라는 말을 쓰면 서울말로 오해하기 쉽다는 이유로 김일성 자신이 직접 만들어 낸 말이라고 한다.

문화어의 특징은 북한에 있어서의 정치력의 변화가 말해 주듯이 평양말에다 상당수의 함경도 사투리가 가미된 것이고, 된소리가 많아 거칠고 공격적인 것이 우선 지적해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표준어를 평양어로 삼은 이유는 김일성 자신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말은 남존여비사상과 썩어빠진 부르조아적 생활이 지배하는 말로서 여자들이 남자에게 아양을 떠는데 쓰이는 코맹맹이소리를 그대로 쓰고 있으며, 그것마저 고유한 우리말은 얼마없고 영어, 일본말, 한자어가 반절이상이나 섞여 잡탕말이다. .... 우리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 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

이러한 정책으로써 북한은 "문화어", 즉 평양말을 중심으로 해서 1966년 6월 이래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

국어사정지도처 및 언어학연구소를 동원, 어휘를 선정해서 이것을 민족어로서 확정해 나가려 했다. 이와같은 북한의 언어정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남북한의 언어 자체에 대한 현격한 격차를 초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필요 이상의 언어통제로 표준말을 사정해서 그것을 소위 「문화어」로써 쓰고 있는 것이 북한의 표준어 정책의 골자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4. 어휘정화와 사전편찬

##### (1) 어휘정화

한글전용의 정책이 실시된 후에, 언어정화의 규범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법, 표준말의 보급에서 어휘증가 및 문체의 미화와 정확한 의미사용과 문법의 통일에 이르기 까지 이른바 「말다듬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다듬기 운동」의 목적은 공산주의적인 교양에 연결시키는 동시에 국어의 문화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다듬기 운동의 결과를 원리면에서 그 하나하나를 살펴 보기로 한다.

① 한자어와 고유어가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우리의 고유어를 쓴다. 이 원칙에 의해 '다듬어진' 용어 중에서 우선 언어학 용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학 용어>

신어 - 새말

략어 - 준말

중서 - 내려쓰기

한자어 - 한자말

감탄부 - 느낌표

방 점 - 밑점

자모글자 - 낱소리글자

회화문자 - 그림글자

음절 - 소리마디

개음절 - 열린마디

내파음 - 속터짐소리

단음절 - 홀마디

량순음 - 입술소리

분절음 - 마디소리

순치음 - 입술이소리

소음 - 쉬쉬소리

비음 - 코소리

류음 - 흐름소리

후설음 - 혀뒤소리

장음 - 긴소리

전음 - 떨림소리

전설음 - 혀엿소리

접속도 - 이음토

단어 - 낱말

주어 - 임자말

보어 - 보탬말

삼입어 - 끼음말

종결술어 - 마침 풀이말

직접보어 - 바로보탬말

간접보어 - 건너보탬말

외규정어 - 매김받는말

술어 - 풀이말

감동어 - 느낀말

이제 일반용어 중에서 '다듬어진' 말의 경우를 몇 가지 들어  
보기로 한다.

( 예 ) 파급되다 - 미치다. 퍼져가다.

집요하다 - 끈덕지다

완곡법 - 에두름법

퇴적하다 - 무지다

담당 - 말음

섬궤하다 - 빨아들이다

묵묵히 - 말없이

모호하다 - 흐릿하다

분무기 - 뿌무개

두절되다 - 끊어지다, 막히다

저락하다 - 떨어지다

접수구 - 받는데

초경 - 애벌같이

애용하다 - 즐겨 쓰다

피혁공장 - 가죽이집 공장

피곡 - 걸곡식

홍수 - 큰물

니토 - 진흙

공포 - 헛충

다음으로는 체육용어 중에서 한자어가 고유어로 '다듬어진'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예) : 호흡극한점 - 숨고비

역전경기 - 역이어달리기

시축 - 첫차기

득점망 - 문그물

분간휴식 - 쉴시간

도수체조 - 맨몸체조

지상회전 - 팔집고돌기

② 다음으로는 외래어를 고유어나 한자로 '다듬은' 예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폭넓게 행해졌다. 이것은 체육용어의 예

부터 기술해 보기로 한다.

< 체육용어 예 >

라이트윙 - 오른쪽 공격수

라이트플백 - 오른쪽 방어수

라이트하프백 - 오른쪽 중간방어수

레프트인너 - 좌내 공격수

레프트 윙 - 왼쪽 공격수

센타포드 - 중앙공격수

센터링 - 중앙으로 꺾어차기

코너킥 - 모서리킥

써클 - 데

월드 - 안경기

라프타임 - 구간시간

홍코나청코나 - 홍자리 청자리

스파이크 - 못신

체스트패스 - 가슴연락

롱패스 - 긴연락

서브 - 던지기 킥

스파이크 - 순간타격

그외의 외래어를 한자어나 고유어로 고친 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예 ) 호크 : 똑딱단추

카텐 - 창문보  
노크 - 손기척  
말코니 - 내민대  
쓰리빠 - 끌신  
레코드 - 소리판  
리봉 - 꽃대기  
블펜 - 알촉만년필  
벨 - 전기종  
프레카드 - 친구호  
아이스케익 - 얼음과자  
아이스크림 - 얼음꿀  
샤워실 - 물맞이칸  
쿨세트 - 몸매띠  
헬리콥터 - 직승비행기  
파스타 - 연고  
라제타 - 방열기  
다이아 - 운행표  
화물스켈 - 배짐눈금  
가자스카트 - 잔주름치마  
원피스 - 외동옷  
투피스 - 동강옷  
남방샤쓰 - 반소매

샤프 - 알연필

에피소드 - 결애기

유모아 - 우스개

③ 고유어로 풀이할 때는 어휘의 유기성을 고려하여 반대말, 비슷한말, 합성어 구성이 어울리게 한다는 원칙을 세워 두고 있다. 즉 유추현상을 이용한 어휘정화의 한 예라고 본다.

(예), 사진용어 중에서,

근사 → 가까이 찍기,

원사 → 멀리 찍기,

대사 → 크게 찍기,

중사 → 보통 찍기,

④ 그리고 일본어의 잔재도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운동화 → 헝겊구두

시아게 → 끝손질

이상이 「말다듬기 운동」의 원칙과 거기서 다듬어진 말들을 예로 든 것이다. 이러한 말다듬기 운동은 말다듬기 전문용어 18개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 졌는데 그것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말다듬기 전문용어 분과위원회 명단>

1. 의약학 용어분과위원회
2. 금속 용어분과위원회
3. 생물학 용어분과위원회
4. 농학 용어분과위원회

5. 자연과학 용어분과위원회
6. 전설수리 용어분과위원회
7. 전기통신 용어분과위원회
8. 기계 용어분과위원회
9. 경공업 용어분과위원회
10. 상품이름 용어분과위원회
11. 문학예술 용어분과위원회
12. 사회과학 용어분과위원회
13. 체육 용어분과위원회
14. 수산해양 용어분과위원회
15. 운수 용어분과위원회
16. 지질광업 용어분과위원회
17. 임학 용어분과위원회
18. 일반어 용어분과위원회

위와 같은 18개 전문용어위원회에서 연구토론을 추진한 내용은 매주 2~3회에 걸쳐 「노동신문」, 「민주조선」이란 신문에 발표되어서,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모으게 하고 있다. 그 일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의학용어 중에서) <정제>와 <환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안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정제>를 <알약>으로, <환제>를 <환약>으로 하자는 안이 제일 좋겠다는 의견을 보낸다. 물론 <정제>를 단추처럼 생긴 약이라고 해서 <단추약>이라고

하고, <환계>를 <알약>으로 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정제>를 <알약>으로, <환계>를 <환약>이라고 많이 쓰고 있는만큼 <알약>과 <환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

어휘정화에 대한 정책으로 \*말다듬기 운동\*에 대한 서술을 맺기에 앞서 종합적으로 각 분야별 용어 중에서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다음에 예시하기로 한다.

사과이름을 지명과 계절, 색깔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친 점이 특이하다고 본다.

- ( 예 ) 국광 - 북청 ( 지명에서 )  
홍옥 - 황주 (     "   )  
축 - 송화 (     "   )  
옥 - 구월 ( 계절 )  
인도 - 덕성 ( 지명에서 )  
테리샤스 - 허천 ( 지명에서 )  
왜금 - 단풍 ( 색깔로서 )  
스테만와인샤프 - 향사과 ( 냄새 )

다음은 예술용어 중에서 몇 가지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 <문학> 단상→토막생각  
련시→이음시  
련시조→이음시조  
방랑시인 - 떠돌이 시인  
잔르→갈래

프로트 - 줄거리

에피소드 → 결애기

스필 → 문체

아이로니 → 비양

<음악> 휴지부 - 심포

선율 - 가락

음역 - 소리너비

음구 - 소리목

음정 - 소리사이

조현법 - 줄고르기

발현악기 - 뜯음줄악기

타현악기 - 치는줄악기

<미술> 명암 - 검밝기

명암계조 - 검밝음새

농담 - 짙음새

갈필 - 마른붓질

습필 - 젖은붓질

근경 - 가까운 경치

중경 - 가운데 경치

원경 - 먼 경치

전경 - 앞경치

배접 - 등불힘

포수 - 바탕칠

중심선 - 무개선

정중선 - 복판선

카르톤 - 초벌그림, 그림판

다음은 의약용어 중에서 몇가지를 예거해 보기로 한다.

( 예 ) 모세혈관 - 심피줄

대순환 - 큰피돌기

소순환 - 작은피돌기

체순환 - 몸피돌기

폐순환 - 폐피돌기

호흡 - 숨쉬기

순환장애 - 피잘안돌기

폐활량 - 폐숨량

견갑관절 - 어깨마디

주관절 - 팔꿈마디

발진제 - 땀내기약

지한제 - 땀뺀이약

해열제 - 열내림약

강장제 - 보약

절창 - 베인상처

자창 - 찢린상처

할창 - 빠개진상처

렬창 - 찌진상처  
좌창 - 찌긴상처  
광선욕 - 햇빛 쬐이기  
청진 - 들어보기  
촉진 - 만져보기  
시진 - 살펴보기  
문진 - 물어보기  
타진 - 두드려보기  
망진 - 바라보기

다음은 교육분야에 관계되는 어휘들을 살펴본다.

( 예 ) : 독서 - 책읽기

독서 감상록 - 읽은느낌

감상문 - 느낀글

삽화 - 바친그림

필순 - 쓰기차례

게시판 - 알림판

지적교육 ( 知的 - ) - 슬기교육

육체교육 - 몸교육

직관교육 - 보임교육

예습 - 미리익힘

복습 - 되익힘

수학여행 - 배움나들이

표현독 - 멋내읽기  
인용독 - 뽑아읽기  
세미나르 - 학습토론  
콘스펙트 - 요점적기  
질문지법 - 썬우기법

수학에 관련된 어휘를 '다듬은' 예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예 ) : 발산하다 - 안다가든다

수렴한다 - 다가든다

다항식 - 여러마디식

단항식 - 홀마디식

기지항 - 아는마디

미지항 - 모르는마디

접선 - 닿이선

접점 - 닿이점

암산 - 속셈

필산 - 쓸셈

보각 - 보텔각

여각 - 나머지각

동측내각 - 한쪽안각

대입하다 - 갈아넣다

좌표법의 원점 - 처음점

정수 - 더수

부수 - 덜수

(+3) - 더 3 (즉, 플러스 3 대신에)

(-3) - 덜 3 (즉, 마이너스 3 대신에)

집합의 원소 - 모임의 날수

등호 - 같기표

대분수 - 데림분수

번분수 - 겹분수

빈도수 - 잦음수

지수 ( $5^4$ ) - 보임수, 어깨수

그외에 기상용어로서는 퇴우 - 우퇴비, 범람기 - 범창철, 고수위 - 높은 물높이 등으로 다듬은 예들이 있으며,

경제학의 용어로는,

수입 - 들이기

지출 - 내기

출금 - 돈내기

결제 - 치르기 등으로 예를 들 수가 있겠다.

끝으로 살펴 볼 것은 최근 남한에서도 한창 호응도가 높아가고 있는 고유어로서 사람이름을 짓는 일이다. 이것은 '말다듬기 운동'과 더불어 고유어를 찾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작업임에는 틀림 없다.

남자이름에는 금돌, 석세, 아침, 한범, 바위, 세찬, 슬기, 술이, 보람,

노을, 용한, 등이 있으며, 여자이름에는 꽃분이, 미나리, 진달래, 은별, 꽃송이, 참매, 첫순, 새날, 봄산 등이 있다.

그리고 들림자를 고려한 한솔, 한길, 한범, 한산의 경우도 있다.

## (2) 사전편찬

한자폐지와 말다듬기 운동에 의하여 북한의 어휘가 많이 달라짐에 따라 새로운 사전편찬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사전편찬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함께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을 지키며, 한자말과 외래어가 고유어와 뜻이 꼭 같을 때에는 고유어만 쓰고 사전에서 한자말을 배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전은 법적, 통계적 기능을 수행해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철저한 통계적인 사전편찬 원칙 아래서, 북한에서는 해방 후 두 개의 사전이 편찬되었는데 그 중 1968년에 나온 『현대조선말사전』은 약 5만 어휘만 실렸는데, 한자(漢字)가 한자도 없고, 학술전문용어, 옛말, 사투리, 고유명사, 소위 『퇴폐적 사상표현』 등이 다 빠진 것이 특색이다.

그리고 그 어휘마다 정치성이 부여되어 김일성의 인용구를 굵은 활자로 장황하게 부치고 별표까지 달아 놓은 것이 특색이다.

## 5. 정치도구로서의 언어

이상에서 북한의 언어정책에 관하여, 문자정책, 표준어정책, 어휘정화 및 사전편찬에 관해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일관된 결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위 사회주의사회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는 기치아래 하나의 정치도구로써 언어정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언어라는 실체를 북한이라는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언어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힘있는 무기」라 외치며, 북한의 모든 인민은 김일성의 「혁명적 투쟁」을 본받게 되어 있다. 그것은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언어풍이고, 거칠고 난폭하고, 파괴적인 성격을 조장시키는 잠재적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학력이 높고 문화적 배경이 높은 사람일수록 농촌태생보다는 도시사람일수록 말을 더 잘하고 다부지고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한다.

북한에 있어서 김일성의 이상화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시되고 있는가는 다음의 몇 가지 언어교육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잡지나 신문을 보면 모든 글이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함으로써 시작된다. 이것은 국민학교 때부터 국어시간에 작문형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슨 논문

이전 간에 김일성이 언급한 내용을 일반적이든 막연한 인용이든 반드시 갖다 붙이는 것이다.

이와같이 김일성 개인의 이상화에 입각한 언어생활은 사고방식, 또한 성격형성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이라고 본다. 정치도구로서 언어가 완전히 이용되고 있음을 명백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된 조국을 생각해 보면 남북간에 벌어지고 있는 언어격차의 문제는 단순히 어휘체계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성격형성문제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격차의 문제는 절대로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격차를 줄이기 위해 남북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열려야 하며, 문화교류, 통신교류, 인사교류가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언어정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IV. 남한과 북한의 언어 및 언어정책 비교

위에서 북한 언어의 공시적 분석과 언어정책 현황을 살펴 보았다. 우리가 북한 언어의 공시적 분석과 언어정책을 살펴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과 우리의 언어와 언어정책과 비교해서 좋은 방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족언어를 다듬어 나아 가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언어상황을 우선 비교해 보아야 되는 것이다. 비교는 비교 그 자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 남한과 북한의 언어구조를 비교해 보고, 다음으로는 문자 및 국어 정화 문제에 대해 비교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정책에 대해서 비교 교차해 보기로 한다.

### 1. 언어구조의 비교

남북한의 언어구조는 위에서 분석해 본결과 커다란 차이점은 없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존재함은 사실이었다. 그러면 음성-음운론적 입장, 형태론적 입장, 통사론적 입장, 어휘의이론적 입장, 문체론적 입장에서 하나씩 비교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한가지 먼저 언급되어야 할 사실은 원래부터 방언적인

차이가 존재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 음성학 - 음운론적 입장에서

음소체제에 있어서는 남북한어를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래 음소체제란 짧은 기간 내에 쉽사리 변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음운현상에 있어서도 대동소이한 편이라 할 수 있겠으나 두음법칙의 현상에 있어서는 그 양상이 다르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어서는 지극히 의도적으로 두음법칙의 현상을 파괴해서 규범화했기 때문이다. 물론 남한어에서도 외래어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그 파괴가 일어나지만 규범화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북한의 언어에 비교할 바가 못되는 상태이다.

"1" 모음 역행동화 현상도 남한의 언어에서 자유변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북한에서 처럼 규범화 하지 않고, 특히 맞춤법체제에서 표준발음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이다. 북한어에서는 소위 표음주의로써 그 규범을 강제화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결과이다. 후설모음화 현상, 단모음화 현상, 경음화 현상, [j] 음의 개입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억양면에 있어서도 원래 방언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더 심화되어 감정의 표현방식의 차이로 인해 남북한어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들어났다.

이것은 정치 및 사회의 영향이 언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언어학적 사실을 입증해 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2) 형태론적 입장에서

조어법에 있어서 북한에서는 파생접사의 사용범위를 확대해서 조어한 점이 남북한어의 차이를 초래했다. 파생접사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언어생활의 다양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전체 문법적 사실에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준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인 배경이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가 생소한 단어를 형성하고 만 차이를 유발시켰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어의 "국백", "유방"이 "국영백화점", "유선방송시설"의 준말인지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며, 북한 사람들이 남한어의 "불백"이 "불고기 백반"의 준말인지 짐작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글곡법에 있어서 언어분석의 방법에 있어 차이가 났을 뿐 언어현상 자체로 볼 때는 글곡법에는 큰 차이가 비교되지 않고 있다.

## (3) 통사론적 입장에서

북한의 언어에서 복수, 개념의 강화가 뚜렷하지만, 남한어에서는 분명치 않음도 비교가 된다. 서구어적인 영향으로 순수 우리말에서 보다는 약간 개념화가 되고 있지만, 남한어에서는 아직 완전한 개념화엔 요원한 상태라고 보아 진다.

그리고 문장구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남한어는 서술어 중심의 언어인데 비해, 북한어는 주어가 중심이 되어서 수식어와 서술어는 주어의 위상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통사론적 입장에서 볼 때 비교가 되는 차이라고 파악된다.

그리고 존대법체계에 있어서 상대존대법의 등급이 북한에서는 단순화의 길을가고 있음이 남한어와 비교해서 차이가 난다. 물론 이것은 문법기술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북한의 언어정책이 철저히 규범적인 언어통제를 강요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무시 못할 이 질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 규범문법을 권장할 때와 강요할 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문제이다.

#### (4) 어휘의미론적 입장에서

남북한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팔목할 만한 분야가 바로 어휘 의미론적인 면인 것 같다.

사회의 현실에 따라 어휘의 의미는 그 개념과 명칭의 관련에 있어서 변화가 다양하면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일반론에서 볼 때 언어기호체계의 자의성이 실증될 수 있는 좋은 예이기도 한 것이다.

남북한어가 서로 명칭과 개념 면에서 결합과정의 차이가 현격한 정도로 심화되고 있음을 앞에서 예로 든 어휘들을 비교하면 한 눈에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 특징을 비교해 본다면, 남한어에서는 외래문화의 수용, 사회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기인하여 새로운 어휘가 생겨나거나, 그 의미가 확대, 축소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학자들이나 학회에서 국어정화에 관심을 갖고 어휘정화의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소위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민족어의 독창적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어휘의 의미조정을 감행했다.

이점이 남북한의 어휘의미론의 입장에서 비교가 되는 점이라 하겠다.

#### (5) 문체론적 입장에서

남한어에서 일반적으로 은유법과 완곡한 표현이 발달되어 있으며, 인칭 명사에 대한 수식은 별로 없으며, 서술형과 의문형이 많은 반면에, 북한어에 있어서는 직설적이고 육설과 격렬한 성토적 표현, 과장된 극존대, 수식어가 많으며, 명령형, 선통형, 감탄형이 많음이 특색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문체론적 특색도 비교가 잘 되고 있다.

어휘 못지않게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문체론적 문제이다. 이렇게 볼 때 이런 문체론적인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면 감정의 극단적 분화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2. 문자 및 국어정화의 비교

언어현상은 자연추세에 의해 정상적인 변화를 거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의 규범적인 개입이 언어정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경우는 문자나 국어정화 문제에 있어 지나친 강제화가 요구되어진 반면에, 남한의 경우에는 간접적이고, 계몽적인 조치만 있었을 뿐이다. 이것이 문자 및 국어정화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차이로 비교가 되는 점이다.

### (1) 한글전용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한글전용을 추진해 와서, 문제점이 상당히 발견되어 왔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에는 한글전용론과 국한문혼용론이 상반되는 가운데 정책 역시 우왕좌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해방후 우리의 문자정책이 필요이상 자주 변경되어 왔음이 입증한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문자정책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문자정책은 여기에서 그냥 머물거나 망설여서는 안될 것이다. 일반 언어학적 견지에서, 그리고 우리말과 글의 장래를 볼 때는 한글전용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도 확고한 정책을 확립하여 한글전용으로의 문자정책을 감행함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 (2) 맞춤법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띄어쓰기 등에 있어서는 비교될 만하다.

북한에서는 불완전명사 "수", "것" 등을 다 붙혀 쓰고 있다. 즉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로 띄어쓰는 것을 북한에서는 "할수없다.", "할것이다"로 붙혀 쓰고 있다.

이러한 예는 본동사와 보조동사 사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헤어져 있습니다.", "베어 낸다." 등이 북한에서는 "헤어져있습니다.", "베어낸다."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일본과 비슷한데 일본어의 경우 모든 종속구는 본구에 붙혀 쓰고 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붙혀 써도 전혀 이해에 곤란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며, 개념이 모호하지 않은 낱말은 한데 묶어서 쓴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3) 표준어 및 어휘정화에 있어서

남한의 표준어는 전통적으로 서울말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며, 북한의 소위 문화어라는 것은 평양말에다 상당수의 함경도 사투리가 가미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표준말을 삼는 기준에서 큰 차이를 남북한이 보이고 있음을 비교할 수 있다.

표준어의 사정정책에 있어서 남한의 경우 1930년대의 표준말 사정안을 근간으로하여 여러 학술단체에서 그 개정안을 제시하여

검토하여 수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북한에 있어서는 철저한 규범적인 제정 아래서 소위 그들의 "문화어"를 채택하여 일반언어 생활에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전편찬의 원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그들의 "문화어"가 아니고 나타난 어휘는 전부 등재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어휘정화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남북한의 차이는 없지만, 어휘를 정화하는 기저의 발상에 있어서는 상이점이 충분히 들어났음은 상술한 바이다.

결국은 남북한에 있어서 차이점이란 조어불 하는 원리에 있어서 그 의도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어정화정책이 남한에서는 구속력이 없는 반면, 북한에서는 철저히 강요적이라는 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남한에 있어서 구속력이 없다는 말은 언어의 자유추세에 의존하면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면, 북한에 있어서는 그 역현상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3. 정책의 비교

다음으로는 언어정책면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의 경우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선 언어의 보급면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남한의 경우에는

어떤 규범적인 언어를 국어교육에만 국한하여 학교에서 국어교육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언어학적인 학술이론이 비교적 분분한 편이어서 어떤 한 가지의 이론만이 정책적으로 교육과 보급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보급이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소위 다듬은 말 사전을 발행해서 보급하면서 새 교과서 및 참고서를 편찬하고 고전번역에 고유어사용을 규제하며, 새 말을 노동자, 농민이 알아 듣는 쉬운말 위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신문, 방송용어도 규제를 하고 각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국어학습을 제도화해 있으며, 한편으로는 어문학 교원의 증원양성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확정된 신조어는 강력한 보급으로 전혀 다른 말은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언어정책면에서 보면 남한에서는 언어정책이 상당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이 표현은 강력한 규제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한글전용문제, 외래어정리를 비롯한 국어순화정책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떤 확고한 규범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본다.

그러한 반면, 북한에 있어서는 우선 정치성이 농후한 언어정책으로써, 의사소통이나 학문매체로써, 또는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으로써 언어보다는 김일성 개인 이상화에 너무 집중된 것이 그 특징이겠다.

이상에서 볼 때 정책적인 면에서 너무 상반된 특징을 보여 주

고 있음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언어정책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는 국가가 최대한으로 간섭을 하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경우와, 둘째는 언어의 자연추세에 맡겨 두고 국가는 무관심하는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경우는 전형적으로 전자의 경우에 속하고, 남한은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후자에 속하는 유형이라고 파악된다.

이러한 비교에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은 언어정책에 있어서 언어에서 정치성을 제거하고 언어의 본래의 목적인 대중의 의사소통, 학문연구의 매개체로 환원시켜 새로운 각도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남한에 있어서는 언어정책이 미온적이어서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에 있어서 위와 같이 정책에서 오는 차이를 좁히는 것만이 앞으로의 "언어의 동질성"을 보장해 주는데 있어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정치성을 배제한 언어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남한은 좀 더 적극적인 언어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V. 남북한의 언어이질화의 원인

앞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언어구조와 언어정책면을 비교해 보았다. 언어구조면에 있어서는 어휘의미면에서 엄청난 정도로 남북한어가 차이가 났으며, 언어정책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남북한 간의 언어이질화가 초래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남북한의 언어이질화를 검토함에 있어서 첫째 일반언어 이론면에서 우선 검토해 보기로 하고, 둘째로는 남북한의 언어정책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일반 언어이론면에서 원인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 1. 일반언어이론 면에서

동일 언어가 분화되어 지는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첫째 요인은 지리적인 원인에서 교류가 단절됨으로써 오는 이유이고, 그 둘째 요인은 사회적, 문화적인 원인에서 교류가 단절됨으로써 오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러면 먼저 지리적인 요인에서 오는 교류의 단절에 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동조어에서 기인한 두 언어가 분화되는 것은

지리적인 단절의 경우가 많다. 인도유럽피안어족의 경우 원래 한 공통조어이었으나 여러 지리적인 상황에서 서로 교류가 없이 각기 나름대로 언어가 발전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전부 각기 다른 개별어로 발전한 것이다.

근래의 예를 든다면, 불란서어의 경우에 있어서 알프스부근의 지방어에는 산악지방의 많은 고어가 보유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경우엔 산악이라는 장애가 교류를 단절시킨 예이며, 같은 어군에 속하면서도 아이슬란드어가 영어와 심하게 분화된 것은 바다라는 장애가 교류를 단절시킨 예라고 보아진다.

다음으로 사회적-문화적인 원인에 의해서 동일언어가 분화된 경우도 있다. 즉, 사회적인 계층의 차이로 말미암아 사회적 방언이 생겨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영국사회에서 계층간 언어의 차가 심한 것은 바로 사회적-문화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일반언어이론의 관점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인위적인 지리적, 사회적인 단절을 30여년간 강요받았다는 사실은 언어의 이질화를 유발시킨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인위적인 지리적인 장벽으로 말미암아 교류가 거의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간 각기 발전을 이루어 왔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휘면에서 상당한 이질화가 이루어진 것의 첫째 이유는 충분히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 문화적인 단절도 이질화에 큰 몫을 차지했다. 자유민주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란 정치적 - 사회적 이질화는 언어에 영향을 파급시킨 것이다. 각기 그 사회에 적응될 용어가 나타나는 것이 우선 큰 영향을 주지만, 사회체제 속에서 사고방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고 다시 그 언어가 사고에 자극하여 차이가 더욱 심화되어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단절과, 앞서 이야기한 인위적인 지리적 단절이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규정지을 수 있다고 본다.

이점에서 볼 때 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화하는 방법은 위에서 나타난 지리적, 사회적 단절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 남북한 대화를 재개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 2. 언어정책 면에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 볼 수 있는 언어이질화의 요인은 남북한의 각기 다른 언어정책에서 오는 차이이다.

위에서도 여러번 언급했지만 남한과 북한의 언어정책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의도적이고 정치적이고 규범을 강요하는 북한의 언어정책과, 자율적이고 언어의 자연추세에 맡기면서 규범을 권장하는 남한의 언어정책은 결과적으로 언어의 이질화를 유발시킨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언어는 남한의 언어와는 다른 궤도로서 급속히 변화해 갔기에, 특히 이른 시기에 있어서 한글전용과 거기에 따르는

“말다듬기 운동”의 여파로 상당한 언어의 변화 - 어휘의 미면에서 - 가 초래되었다.

이점에서 볼 때 언어정책의 다른 차이로 말미암아 남북한간의 언어이질화가 가속화되었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언어의 이질화를 더 이상 파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무모하고 정치지향적인 언어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각층의 중지를 모아 발전적인 언어정책을 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만이 남북한의 언어이질화의 폭을 좁히고, 더 이상의 이질화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유한 한국어가 내적인 발전을 하면서 항구적으로 “언어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함이다.

## VI. 결 어

단일언어인 우리 한국어의 동질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우리는 본고에서 남북한의 언어를 비교 분석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구조면에서 남북한의 언어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는 없었지만, 다소간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차이가 보였으며, 어휘의미론과 문체론적 입장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들어났다.

그리고 언어정책 면에서 볼 때, 북한은 한글전용을 이룬 시기에 단행함으로써 문자정책, 표준어정책, 어휘정화 및 사전편찬정책이 급속히 규범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남한에서는 철저하고도 규범적인 언어정책이 수행되지 못했다. 이것은 정책수행상의 차이로 풀이될 수 있었는데, 북한은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었고, 남한은 권장 및 계몽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언어의 이질화의 요인은 첫째 지리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 교류가 단절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언어정책의 차이에서 유발되었음을 결론지을 수 있었다.

우리 이제 남한의 언어문화와 국어생활이 북한에 대해 우위성을 가짐으로써만이 걸잡을 수 없이 변화해 가는 북한의 말, 이른바 "문화어"의 도전에 대처하여 교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철저하게 정리하

고 다듬어 가는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간의 정상적인 대화를 재개하여 최소한 문화적 교류를 가짐으로써 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해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점을 중요히 인식하고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우리의 언어에 가질 것을 다짐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 확신한다.

## < 참 고 문 헌 >

- 국민방첩연구소(편) : 북한용어 대백과, 1976.
- 국어조사연구위원회(편) : 표준말 자료, 1970.
- 국토통일원(편) : 남북한비교연구논총, 1976.
- 극동문제연구소(편) : 북한 말다듬기 자료집, 1973.
- 극동문제연구소(편) : 북한 언어정책 자료집, 1973.
- 극동문제연구소(편) : 북한 민속학 자료집, 1974.
- 김 방한 : 언어학논고, 1970.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 신기철 - 신용철 :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75.
- 남 광우 : 현대 국어 국자의 제 문제, 일조각, 1971.
- 이 해영 : 북한언어정책의 특징과 실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4.
- 이 현복 : "현대 한국어의 악센트", 문리대학보 28, 1973.
- 이 현복 : "한국어 단음절어의 억양연구", 언어학 1, 1976.
- 이 현복 : "서울말과 표준말의 음성학적 비교연구", 언어학 2, 1977.
- 장 태진 : "국가어의 개념",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1971.
- 조선어학회(편) : 조선어표준말모음, 1946.
- 최 학근 : 국어방언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 최 현배 : 우리말본, (네번째 고침), 정음사, 1971.
- 한글학회(편) : 한글맞춤법통일안(346판), 1975.
- 허 응 : 언어학개론, 정음사, 1963.
- 허 응 : 우리말과 글의 내일을 위하여, 과학사, 1974.

홍연숙 : " 남북한언어개념의 이질화연구 ", 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1977.

남북회담 제1차서울회담 연설문 ( 녹음테이프 ), 1972.

Brught.W and A.K. Ramanujan : " Sociolinguistic Variation and Language Change", in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ics, Cambridge, 1964.

Dinneen, F.P :An Introduction to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1969.

Encyclopaedia Britannica, 1970.

Gleason, H.A An Introduction to Prescriptive Linguistics, New York, 1961.

Gray, G.W and C.M. Wise : The Bases of Speech, 1959.

Haugen, E : "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nguages ", in Linguistics edited by A.A. Hill, 1969.

Haugen, E : " Dialect, Language and Nation ", American Anthropologist, vol.68, 1966.

Kottler, B. and Martin Light : The World of Words, 1967.

Labov, W. : " The Study of Language in its Social Context ", Studium Generale, vol.23, 1970.

Ladefoged, P: A Course in phonetics, New York, 1975.

Langacker, R: Fundamentals of Linguistic Analysis, New York,  
1972.

Lehmann, W.P: Historical Linguistics, New York, 1962.

McIntosh, A. : " Language and Style ", Durham University  
Journal, vol.55, no.3, 1963.

Le Page, R.B. : The National Language Question, 1969,  
London.

Ray, P.S : Language Standardization, Mouton, 1963.

